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드디어 하선과 키스신 ... 지식의 순애보 힘들었다”

서지석, MBC '하이킥...' 다혈질 체육교사 지식역

평소에는 속에 있는 말을 거르지 않고 입을 밖으로 내뿜고 마음에 안 들면 '버럭버럭' 하기도 일쑤다.

MBC TV 시트콤 '하이킥-짧은 다리의 역습'의 윤지석. 그런 윤지석의 수줍고 애뜻한 순애보가 여성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 더 힘들었던 것 같다. 배우들도 지식과 하선을 연결해줄 지 전혀 몰랐다”라며 “하선과 영육이 이미 한 달 전에 헤어지긴 했지만 그간 하선이 지식에게 몇 차례 확고하게 거절을 해서 가능성이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랬던 지식과 하선이 키스를 한다는 사실은 불과 방송 일주일 전이야 알았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 녹화장에서 키스신 대본을 보자마자 바로 하선이를 찾아가서 '이거 봐라. 키스신 있다'고 자랑했어요. 하하. 그런데 하선이는 영육과 헤어지진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좀 걱정이더라고요.(웃음)”

데뷔 이후 실정법, 재벌2세, 의사 등 연기

한 서지석에게 다혈질 체육교사 윤지석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사실 제가 말도 어눌하고 평소 소리 내서 웃거나 울지를 않아요. 그런데 시트콤이라 흐름도 빠르고 대사도 많은 데다 버럭 대는 캐릭터라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죠. 첫 대본 연습날에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캐릭터를 제대로 못 잡아 진땀을 흘렸고 너무 못해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있었어요.”

특히 버럭 대는 것 빼고는 지식의 몸짓과 말투 하나하나가 실제의 서지석과 닮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 애착이 생겼다.

“시트콤이다 보니 일상적인 연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 섬세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일상적인 연기를 이번엔 많이 해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제의 제 모습이 많이 녹아나가는 것 같아요.”

서지석은 어느새 데뷔 11년을 채웠다. 2001년 '드라마시티'로 데뷔했고 2006년 KBS 일일극 '열아홉살'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 직후 군에 입대하면서 그의 상승 곡선은 멈췄고 그는 재대 후 다시 새로 출발



선에 서야했다. 그게 2010년 2월 SBS '산부인과'였다.

“제대하고 나니 아무도 짝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역할이 주어진다든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산부인과' 하면서 너무 떨었어요. 밥을 먹는 신에서 손가락질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죠. 신인 때도 그때처럼 긴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EBS 플러스1 and 플러스2 program schedule tables.

Table with 12 rows corresponding to the 12 zodiac signs, listing birth dates and lucky numbers.

Advertisement for '신비림' (Shinbireum) featuring a woman and contact information.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Stick around' (조금만 기다리세요) with Korean and English text and a QR code.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니하오 풍구위' (니하오 풍구위) with Chinese and English text.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오하오우 니혼고' (오하오우 니혼고) with Japanese and English text.